

제52년차 전북영농학생축제 성료

‘너랑 나랑 함께 만드는 미래농업’

농업 지식·기술 뽐내는 전공경진 등 5개 분야 20개 종목으로 치러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제52년차 전라북도영농학생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FFK(한국영농학생회)전라북도지부·(사)한국농업교육협회 전라북도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너랑 나랑 함께 만드는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로운 농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생명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영농학생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북 직업계고 농업계열 9개교 학생과 교사 300여 명이 참여해 전공지식과 그동안 갈



23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제52년차 전라북도영농학생축제’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축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다운 실력을 선보였다.

대회는 △농업 지식·기술을 뽐내는 전공경진 △실무능력을 겨루는 실무경진 △경영 능력 및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과제 이수 △글로벌리더십 △FFK 골든벨 등 5개 분야 20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한편 1등급(금상) 20명과 2등급(은상) 29명에는 전북도교육감상을 3등급(동상) 49명에는 지부장상을 수여했다. 이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52년차전국영농학생축제에 전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영농학생축제는 명실공히 미래세대 한국농업의 주역인 학생들의 배움과 나눔의 장”이라며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는 방위산업학과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3일 전북도와 지역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다산기공(주), (주)데크카본, 비나텍(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방위산업학과 설립 추진

다산기공·데크카본·비나텍 등과 방산기업들과 협약 체결 이르면 내년 신입생 선발 목표... 기업 취업 연계도 구축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인 방위산업학과 설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이날 전북도와 지역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다산기공(주), (주)데크카본, 비나텍(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대 등 협약 기관들은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방위산업학과 설립을 추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전문 연구 인력 육성에 나선다.

또한 방위산업을 선도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의 취업 연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협약을 통해 전북대는 전북도 및 관련 기업들과 연계해 계약학과인 방위산업학과 설립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연구 분야를 이끄는 방위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공동 추진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 아젠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3일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자도 교육의제 발굴·학령인구 감소 대책 논의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정기회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 교육거버넌스위원회 분과별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의안을 심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특별자치도 교육의제 발굴,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는 5년 후 학령인구 감소폭이 3만 1,600여 명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특례 발굴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의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를 초청해 학령인구감소 관련 전북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전북교육의 현안을 민관이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

다”면서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정책 수립의 민주·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당연직 3명, 전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외부유족위원 1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선정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 31일까지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TF 1차 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창조·재(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TF 협의회(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초등교사, 교감·교장, 행정실장,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추진팀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향후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2023년 도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및 안전대책 등의 수요를 파악해 보다 내실있는 돌봄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한편 TF 협의회는 초등돌봄교실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타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돌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업무추진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LINC 3.0 사업 설명회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2일 공학 1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LINC 3.0 사업 참여 9개 단과대학, 46개 학과 교수,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주대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은 참여학과 총괄 책임 교수제 및 마일리지 제도를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사업에 전북도가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연계 산학연 협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과 함께 글로벌대학으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김상진 단장은 “참여학과의 적극적인 LINC 3.0 사업의 참여 유도를 통해 2023년도에 산학연 핵심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높이고, 드론 분야 등에서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군산대, 대학 상생·인재양성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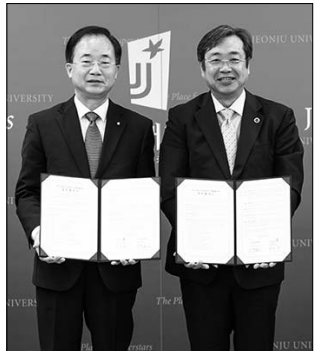
에너지·방산 분야 등 특성화 공동 협력 등 추진키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3일 대학관 4층 접견실에서 군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대학 상생과 인재 양성, 그리고 산학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것에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에너지 및 방산 분야 등 대학 특성화 공동 협력, 교육과정 공동 운영, MOOC 기반 운영 플랫폼, 실험·실습 기자재 및 연구 장비, 취·창업캠프, 학생 상담센터, 행정 정보 및 시설물 도서관 자료 개방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은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대학 간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기로 합의했다.



박진배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대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군산대학교와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서 상호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복합시설 국내·외 사례 탐색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는) 23일 전주평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5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정책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교육동향 분석 보고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동향 및 통계를 분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국내·외 사례 탐색’과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정책 국내·외 사례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학교복합시설의 국내·외 사례 탐색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어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정책 국내·외 사례 탐색에서는 타시도의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사례, 학부모 동아리 운영사례, 지역단위 학



부모 교육 운영사례와 미국과 일본의 학부모 교육 운영사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 사업 인식 제고를 위한 국외 연구 사례 탐색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위한 교육정책과 복합시설 관련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호주연구위원회 후원으로 4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 22편 중 2편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숙경 소장은 “이번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학생의회 임시회... 41건 안건 제출

고교 1학년 3월 전국

연합모의고사 응시권 보장

인권교육 확대 등 7건 채택

내달 정기회에 상정키로

지난 20일 전북학생의회 제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개원한 전북학생의회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 의원별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이를 토대로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위원회 16건, 인권위원회 9건, 학생생활위원회 16건 총 41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채택된 7건은 다음달 정기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채택된 안건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모의고사 응시권 보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강화 △인권교육 확대 △학생 회장단 선거 공약



전북학생의회 제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이행비 지원 △선거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금연지원 정책 수립 △학생 등·하교비 지원 등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생의회로부터 송부된 안건에 대해 다음달 5일 제1회 정기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최현호 의장은 “이번이 학생의회 출범 이래 첫 번째 정기회만큼 학생들이 목소리가 전북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북학생의원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